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고소설 이본(異本) 비교 교육방안 연구

— 「남창 춘향가」,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

정보배 부산남고등학교 교사

- I. 머리말
- II. 고소설 이본 비교 교육의 필요성
- III. 이본 비교 교육의 실행 방안
- IV. 맺음말

I. 머리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인공지능의 위력과, 막상 이를 창조한 인간 통제력의 한계는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며 질주해 온 인간이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존재 이유와 가치를 물어야 할 시기이다. 교육의 역할 또한 새롭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고전문학 교육은 민족 문화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가장 큰 이유로 삼아 왔으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작금에 있어 이는 고리타분함, 국수주의적 태도로 오인되기도 한다. 현 시대에 긴밀히 요청되는 고전의 역할이란 현재가 곧 과거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삶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며,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는 혜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고전문학 교육의 가치와 그 지향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즉, ‘고전문학을 통해 창의성 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모색이 필요하단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단연 ‘핵심역량’의 등장이다. OECD 보고서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의 지향점으로서 제기되었으나, 도입과 적용을 위한 천착의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된 지도 5년이 훌쩍 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과서도 속속들이 나왔다. 따라서 이의 존재를 알가왈부하기보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의 입장에서 그간의 교육 상황을 반추하며 그 취지에 걸맞은 교육내용의 점검과 실행 방안을 논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고소설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고소설 이본 비교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서사 문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동일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본군의 존재를 꼽을 수 있다. 동일 줄거리에서 파생한 다양한 이본의 탐색은 당대 향유층의 사고 저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게 하며, 당대인의 숨결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영역으로만 인식될 뿐 교육현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한 편이다. 본고는 이본 비교 교육을 제안하면서, 학습자들의 고전소설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인 6개의 역량 중에서도 비교적 관련성이 부족하다 여겨지는 ‘자료·정보 활용 역량,’¹⁾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과도 연결될 고소설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은 춘향전의 줄거리를 아는 것만으로 「춘향전」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청 또한 인당수에 뛰어들어 이후 과연 그녀의 아버지가 눈을 떴는지, 어떻게 뜨게 됐는지 크게 궁금해 하지 않는다. 토끼가 간이 없다는 거짓말로 수궁을 탈출하여 이후 무사귀환 했는지 여부 또한 마찬가지다. 유명한 작품이라도 실상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작품에서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과학, 기술 교과와의 관련성이 높겠으나, 국어과 역시 ‘자료·정보 활용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교과 역량으로 채택하였다. 자료와 정보의 범위를 정보 전달 글이나 매체만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으며, 고소설의 다양한 이본의 교육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파생된 수많은 이본의 공약수적인 내용만으로 작품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²⁾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에 대해 이렇듯 피상적인 얕으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고민을 요한다.

따라서 현재 고전문학교육이 당면한 여러 물음과 과제들 속에서, 고소설 이본 교육은 하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금까지 연구자들만의 영역이었던 이본 비교 활동을 학습자에게 적절히 안내한다면, 핵심역량 함양 뿐 아니라 우리 고전의 참 모습을 바로 알고, 고전이 주는 묘미를 새롭게 일깨울 수 있으며, 인간 존재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추구하는 문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고소설 이본 비교 교육의 필요성

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전문학 교육

고소설 이본 비교 교육을 주장한 선행 연구는 지금까지 다수 존재해 왔다.³⁾ 이본 비교 교육은 다각적 사고와 활동이 요구되므로 다방면의 핵심 역

2) 혹은 작품 내적 질서나 논리를 통해 작품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시대나 사회 일반의 것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최광석, 2001: 211-230). 이는 텍스트 맥락 정보를 학습자가 탐구하거나 추론하기에 불충분한 교육적 여건으로 인해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자가 파악한 맥락 정보와 해석한 의미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주탁, 2013: 93)”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3) 창작교육으로서 이본 비교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논한 연구(김종철, 1999: 353-375)와, 실제 이를 교육적 방안으로 구현한 학위논문은 다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패러디나 창작 교육에 대한 제안이거나, 이본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선언적 성격이라 작품 이해 측면에서 읽기 위주의 구체적 방법, 단계에 대한 제안이 부족하다. 그 외 구비문학 이본에 대한 대학생 학습자들의 반응을 ‘감지, 분절, 분석, 해석’ 과정으로 도출하여 향후 교육 측면에서 기여할 바를 논의한 연구(고영화, 2015: 35-54), 「홍길동전」 이본의 넓은 편폭을 분석

량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핵심 역량과 이본 비교 활동을 연결한 연구나 교육적 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우선 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과 성취기준,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문학 교과서를 통해 고전문학 교육이 이전과는 다르게 발전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지,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모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이를 중심으로 각 교과는 교과 특성에 맞는 핵심 역량을 4~6개로 재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어과 또한 총론의 6개 역량을 교과 특성에 맞게 ‘자기 성찰·계발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 문화 향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을 국어 교과의 핵심 역량으로 재설정하여 소개하고 있다(교육부, 2015: 3-4).

총론의 핵심역량과 국어과 교과 역량 간 관계를 살펴볼 때, 국어과에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 비교적 총론에서 제시한 6개 역량의 특성을 잘 계승하면서도, 국어과의 특성에 맞도록 다듬은 흔적이 발견된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은 기술의 순서를 바꾸거나 의미를 첨가할 뿐 총론의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며, ‘문화 향유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총론의 역량에서 좀 더 ‘국어, 언어적 특성’을 심화, 강조한 성격이다. ‘자기성찰·계발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은 의미를 첨가하여 범위를 확대 혹은 한정하여 계승한 성격을 띤다.

하며 교과서에서 이를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서인석, 2010: 225-248)가 있다.

학위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교육적 제안으로는 삽화를 중심으로 한 재창작 활동을 통해 기존 학습자들의 단편적 재구성이나 모방적 패러디의 양상을 수정하고 보완하려 한 연구(서보영, 2017), 「열녀춘향수절가」와 「남원고사」를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한 읽기 위주의 연구(심지영, 2011), 「심청전」이 유통된 사회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자료로 사회문화적 맥락의 해석을 유도하면서 「심청가」, 「춘향전」 등을 함께 활용하여 음악·연극적 요소의 학습 및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한 이본 연구(김인선, 2019) 등이 있다.

고전문학 교육은 기술된 6개 교과 역량 성격의 통째로 대체로 ‘문화 향유 역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자료·정보 활용 역량’과 가장 관련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 교육과정의 ‘1.성격’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과목이 6개의 핵심역량과 모두 관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⁴⁾ 그러나 실제 문학 교육과정에 설정된 핵심 개념인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갈래와 역사,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에 대한 태도’의 네 영역이 ‘자료·정보 활용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과 실제 어떤 직접적 관련이 있을지 ‘1.성격’의 서술 상으로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

실제 성취기준에서 역량과의 관련성 정도 혹은 6개 역량이 성취기준과 어떠한 대응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본 비교 교육은 다각적 사고와 활동이 요구되므로 고교 학습자나 대학생 대상이 적합할 것이다. 우선 현 고교 학습자가 배울 선택과목 문학 성취기준의 내용과 국어과 교과 역량 6개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성취기준 내용과 명확히 대응되지 않는 역량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고1의 경우 공통교육과정이었으므로 국어과 내 다른 과목 성취기준과의 관련성을 통해 6개 역량 함양을 총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지만, 고2부터 배울 선택과목 ‘문학’의 경우 실제 성취기준 만으로 역량과의 연결성을 찾기 힘들다.⁵⁾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어과의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과

4) “학습자는 작품에 대한 주체적 해석과 심미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료정보 활용 역량과 자기성찰·계발 역량, 문화 향유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사람들과 작품 세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을 기른다. 또한 작품의 수용과 생산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수행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함양한다(교육부, 2015: 122-123).”

5) 선택과목 문학의 경우 독립된 과목으로서 6개 역량을 아우르려는 의도를 ‘1.성격’에서 분명히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성취기준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볼 때 특정 역량에 치우치거나 편중된 편이며 특히 자료·정보 활용 역량과의 관련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어’ 과목에서 국어과 전반의 핵심역량을 문학 영역의 핵심 개념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 고민하고 선택한 결과가 ‘문학’과목에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논리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된 바 있다(김정우, 2017: 68).

의 관계는 이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것도, 명확히 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다. 성취기준에서 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과역량의 구현이 과연 어떠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지 의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글로벌 규범으로 인해 개정된 국내의 교육과정이 과거의 교육과정과 완벽히 결별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성열관, 2014: 32-33). 우리 교육과정에 도입된 핵심역량이란 실상 내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의 권위로 내부의 변화 요청에 부응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핵심 역량과 성취기준의 연결 지점을 찾기 위해 국어과의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요소를 분석한 연구(이인화, 2019), 과학 교과에서 역량과 성취기준 간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이진숙·김은주·김대현, 2017). 핵심 역량이 교육과정의 실행과 평가라는 실제적 국면에 의미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핵심역량의 하위요소 분석이나 성취기준과의 관계성 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이인화, 2019: 1), 현재 위 연구 이외의 관련 연구를 찾기 힘들다.

실상 핵심역량에 의해 국어과 교육과정이 전반적인 재편성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 ‘문학’에서의 고전문학의 경우 또한 개정 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유사한 양상인, 즉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 관련 교과서 단원에 집중 배치, 편성될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 2019년 발행된 두 개의 문학 교과서의 단원과 작품 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학’ 내용체계 영역 관련 교과서 작품 배치 양상

내용체계 영역 (관련 역량)	단원 및 작품명	
	A 교과서	B 교과서
문학의 본질 (자기 성찰· 계발 역량)	Ⅲ. 문학과 개인의 성장 가치의 이해와 내면화(4) 교전(1): 두류산 양단수를(조식)의 시조 3편 ⁶⁾	

6) 한 단원에 배치되었으므로 8작품 중 4작품의 비중과 같다고 볼 수 없어 1작품으로 보았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I.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문학과 매체(2, 고전 0) 3.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5, 고전 0) III. 문학과 개인의 성장 2. 창의적 사고의 배양(3) 고전(1): 정읍사	I. 문학 활동의 즐거움(14) 고전(2): 광문자전(박지원), 구북 여행(미상)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문화 향유 역량)	I.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 작품의 구성원리(4) 고전(2): 만전춘별사(미상), 동명왕편(이 규보) 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18) 고전(9): 정선아리랑(미상), 찬기파랑가 (충담사), 운영전(미상), 봉산탈춤(김진옥 민천식 구술), 규중철우쟁론기(미상), 바 리공주(미상), 속미인곡(정철), 사씨남정 기(김만중), 덴동 여미 화전기(미상)	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24) 고전(14): 상춘곡(정극인), 흥보가 (미상), 고시7(정약옹), 공무도하가 (백수광부의 아내), 제랑매가(월명 사), 청산별곡(미상), 시조 네 편(성 삼문, 황진이, 김천택, 미상), 주몽 신화(미상), 이생규장전(김시습), 사씨남정기(김만중), 하회 별신굿 탈놀이(미상), 이옥설(이규보), 동 명일기(의유당), 국순전(임춘)
문학에 대한 태도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IV. 문학과 공동체의 삶 (12) 고전(4): 낙치설(김창흠), 보리타작(정약 옹), 십 년을 경영하여(송순), 심청가(정 권진 창)	III. 문학과 함께하는 삶(11) 고전(1): 도산십이곡(이황)
고전 문학 수록 비율	35.42%	34.7%

위와 같은 고전 작품의 배치 상황은 실상 이전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지
지 않았다. 이는 ‘내용체계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부분이 이전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 명칭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문학의 성격
과 역사’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에서부터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로 불리며 유지되어 왔다. 이를 구현한 교과서의 대단원을 통해
이른바 국문학사 관련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학습자들은 이때에 집중적으
로 고전문학을 접하게 되고 그 흐름을 지식적으로 배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교과서의 전체 고전 작품 수록 비율이나 편중 양상은 유사한 편이나,
‘문학’ 각 내용체계 영역에 따른 고전 작품 수록 비율은 다소 상이하다. A교
과서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영역과 고전 문학 작품을 연결 지으려 하였으나,

두 개 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과 직결되는 영역인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는 단 한 개의 고전 문학 작품만을 배치하였다. 반면 B교과서는 영역별 고전 문학 작품 편중이 심한 편이지만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에서 고전 문학 작품의 비중이 A교과서에 비해 높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문학’에서 설정된 내용체계 영역은 사실상 목표로 하는 교과 역량이 뚜렷한 편이다. 따라서 두 교과서의 이러한 차이는 비교적 다양한 역량 함양에 고전 작품을 관련지으려 한 노력의 차이로 보인다. 그러나 두 개의 교과서 역시 6개의 역량 중 ‘자료·정보 활용 역량’과 교과서 내용과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

물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이 전체 국어 교과 역량과 관련된다면 이를 오히려 작위적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체계가 유지된다면 여전히 고전문학은 탐구의 대상이 되기보다 ‘교육적으로 의도된 절차에 따라’ 소개되는 대상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 선택 과목 ‘문학’에 속한 고전 문학이 핵심 역량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갖도록 하려면, 역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개별 역량의 하위 요소 추출을 위한 연구 등 보다 정교한 교육과정상의 설계와 지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핵심 역량 측면에서 본 이본 비교의 교육적 가치

핵심역량 함양의 관점에서 고소설 이본 비교 활동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본 비교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성적·감성적 사고가 동시에 작동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총론에서 제시한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이 자연 증대될 것이라 본다. 고어로 된 문학작품은 교과서의 주석이나 기존 학습자의 배경지식만으로 완벽한 해석에 도달하기 힘들다. 특히 고소설은 전고(典故)의 활용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당대에 많이 읽힌 유학서나 중국 고사의 일부를 동원해야 할 때도 있다. 자율적으로 이 활동을 수행할 때 학습자들은 역사적,

문화적 지식이나 어휘 이해를 위한 보조 자료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것이다. 이후 이야기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학 작품임을 인식하고 감성적 사고를 작동할 것이다. 이후 두 대상의 비교는 고도의 추상적 사고를 요한다. 비교 이후에는 가치 판단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판적·창의적인 사고가 동원될 것이다.

둘째, 협동 및 대인관계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증대될 것이다. 이본 비교는 보조 자료나 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두 개의 텍스트를 기준에 의해 비교·판단하는 활동이므로 두 사람 이상의 협동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둠활동이 바람직하다. 모둠 내에서도 정보 활용이 뛰어난 모둠원, 작품의 창의적 해석에 뛰어난 모둠원, 문화적·역사적 지식이 뛰어나거나 그 방면에 관심이 많은 모둠원, 어휘력이 풍부한 모둠원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면 더욱 풍부한 이본 비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문학은 개인 차원의 수용·생산의 활동이라 생각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본 비교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방향의 문학의 수용과 생산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셋째, 고소설 이본 탐구는 우리 문화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활동이면서도, 문화 자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게 키우게 할 수 있다. 작품 간의 비교를 통한 다채로운 이본 세계의 존재 확인과 각각의 특징에 대한 탐색은 우리 문화 또한 지구상 수많은 문화의 하나로서 일종의 ‘객관적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대표적 작품들을 통해 한국 문학, 혹은 한국 전통의 특질을 찾아내던 의도된 교육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서 한국 고전의 가치를 일깨우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 역량과 시대를 초월한 의사소통 역량의 함양이 기대된다.

III. 이분 비교 교육의 실행 방안

1. 핵심역량의 구조화와 목표 설정

서영진은 핵심 역량에 대한 세계 각국과 글로벌 조직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논의를 크게 ‘인지적 역량’, ‘사회·실제적 역량’, ‘정의적·인성 역량’의 세 가지로 묶었다. 이를 통해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협업 능력, 인간적 감수성 및 인간애’를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정리했다. 이후 우리 사회와 교육의 실정 및 국어 교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국어과 핵심 역량의 재구조화를 시도했는데, ‘의사소통 역량’을 중핵 역량으로 삼고, 이를 보조하면서 심화하는 세 역량으로서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정의적 역량’을 설정하여 국어과 교과 역량을 재구조화했다(서영진, 2019: 32-68). ‘의사소통 역량’을 중핵적 역량으로 둔 것은 타 교과와 다른 국어 교과만의 고유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논의의 특징은 현재의 국어과 역량의 중복되는 성격을 합치면서 위계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다시 현 6개 역량을 돌아보면, 현재의 ‘문학’ 교과에서 강조되어야 하거나 상위에 존재해야 하는 역량 또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학’ 과목은 인간 존재와 가치를 탐구하는 과목이며, 고전 문학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고는 이분 비교 교육이 하나의 대단원, 혹은 프로젝트 학습으로 실시된다고 할 때 대단원의 목표, 혹은 최상위의 목표로 ‘고전문학을 통한 인간 이해’를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간은 보편 인간으로서 ‘나 자신, 타인, 공동체’모두를 지칭한다. 인간 존재의 이해와 이를 통한 자신, 타인,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대두되는 현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 중 하나이다. 이는 그 특성상 ‘자기 성찰·계발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함양과 직결된다. 그러나 이의 역량만을 강조한다면 고전 문학의 학습이 ‘지식의 주입’에서 ‘당위적 가치의 주입’으로 인식

될 우려가 있기에, 우선 고전문학을 탐구할 기회를 주며 여러 역량 함양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 두 역량이 함양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본 비교 교육을 통해 우선적으로 ‘자료·정보 활용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고, 이후 ‘자기성찰·계발 역량, 공동체 역량’의 함양을 꾀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소통 역량, 문화 향유 역량’ 함양을 기대할 수 있다. 6개 역량 간 위계화를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이본 비교 교육을 위한 핵심역량 위계화와 목표 설정

대단원 목표	고전문학을 통한 인간 이해 (의사소통 역량, 문화향유 역량) ⁷⁾		
소단원 목표	1. 주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작품 내에서 찾고,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2. 고소설 이본을 비교해 봄으로써 자료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인물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를 시도할 수 있다.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3. 고소설 이본 비교 활동을 통해 나를 성찰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할 수 있다. (자기성찰·계발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대단원 목표 아래 설정된 세 목표는 실상 이본 비교 교육 활동의 단계적 활동이기도 하다. 학습자는 우선 작품을 읽고 줄거리, 즉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후 주어진 기준 혹은 자신이 가진 기준에 따라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며, 최종적으로 성찰과 내면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⁸⁾

7) 두 역량은 공통적 부분이 많다. 문화향유 역량은 실상 문학교육 전반과 관련되며, 의사소통 역량은 실제 언어 수행활동과 모두 관련된다. 고소설 이본 비교 활동은 당대 독자와 현대 독자의 대화로 귀결될 것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두 역량이 밀접하다고 본다.

8) 고전문학 리터러시의 위계화를 위한 연구에서 ‘전고, 스토리, 해석, 주제, 성찰 리터러시’의 순으로 배열하고 현직 교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준에 따른 순서는 다소 위의 순서와 달랐으나,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의견은 연구자의 설정 순서와 일치하였다(류수열, 2017: 5-31).

2. 작품 선정과 비교 기준 설정

작품은 신재효의 판소리 창본 「남창 춘향가」와 방각본으로 발행된 완판 판소리계 소설 「열녀춘향수절가」의 인물 묘사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신재효본은 유일하게 개작자가 명확한 판소리 창본이며, 신재효는 판소리를 집대성한 업적이 있다. 「남창 춘향가」는 「춘향전」의 다른 이본에 비해 양반의 체면 혹은 양반 향유층의 취향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정병헌, 1985: 78-79). 반면 완판 방각본 판소리계 소설은 경판에 비해 친서민적이며, 2~3배 가량 길다(김현주, 1996: 157-184). 이는 판소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면서, 판소리의 특성상 사건 전개보다는 장면 중심의 감상 성향을 가진 독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된다.⁹⁾ 두 작품은 「춘향전」의 비교적 잘 알려진 이본이면서도, 성향이 비교적 다른 독자층을 지향한 작품으로 이본 비교 교육의 첫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두 작품의 비교와 분석을 위해서는 이야기 구조의 공통적 특성을 추출하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비교의 기준으로 작품 줄거리를 주요인물의 ‘욕망, 시련, 성취’로 보는 관점을 제안한다. 판소리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결핍된 자, 소외된 자의 충족과 참여를 회구하는 민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창자에 의해 구연되고 또 식자층인 신재효가 개작했음에도, 광범위한 이본의 저변에 바탕한 민담적 세계관의 기본 틀은 대체로 유지된다고 본다(정병헌, 2002: 61-65). 이는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두 작품의 중심인물의 특성과 이야기의 결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인물’은 서사 문학에 있어 다양한 모티브들을 묶고 엮어매는 기법으로 존재하며, 주동인물은 독자에게 뚜렷한 공감 등의 감정을 가지게 한다

9) 「장풍운전」 등 영웅소설에서도 완판 방각본 소설은 동일 작품의 경판에 비해 완판 방각본 독자층의 장면 중심의 감상 성향을 반영한다고 본다(김병권, 2001: 242). 이는 조선 후기 서울과 전주의 상이한 출판문화적, 사회경제적, 민속문화적 배경과 관련된다(류탁일, 1981: 15-37).

(이대규, 1988: 45). 따라서 인물은 독자에게 있어 작품 감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판소리계 소설은 이본에 따라 인물의 내면과 욕망이 가지각색으로 표현된다. 인물의 동기와 욕망 실현 방식에 주목하는 것은 작품의 중심 줄거리를 파악하는 기본이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욕망, 시련, 성취’는 그 어떤 서사와도 관련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일상과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위 기준을 통해 학습자들은 보편 인간의 정서와 삶을 담은 고소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시대를 초월한 의사소통과 공감을 경험함으로써 ‘문학을 통한 보편 인간의 이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교육 내용 구성 방안

본 절에서는 위의 이본 비교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두 작품의 비교를 수행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제공될 교육 내용 구성 방안이자, 실제 학습자의 수행 후 결과물로 예상되는 내용이다. 교수자는 본 절의 내용을 기준으로 교재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하거나 수업 활동 및 평가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1) 춘향의 욕망

작품 초반 중심인물은 욕망을 품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 단계의 서술에서 완판 판소리계 소설은 춘향, 심청과 같은 중심인물의 내적 조건¹¹⁾을 월등히 뛰어나게 부각시킨다. 이는 독자들이 주인공에게 감정 이입

10) 두 작품은 각각 판소리를 위해 개작한 창본, 독서물로 간행·유통된 방각소설로서 향유·유통 맥락이 다소 다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완판 「열녀춘향수절가」의 내용적 특성 서술시 부분적으로 경판 30장본(한남본)과의 비교도 실시한다.

11) 인물의 내적조건은 자질, 품성, 능력 등으로 인물의 의지나 노력 등으로 바뀌는 가변적 부분이다. 특히 인성이나 도덕성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정보배, 2018: 43).

하고 동조하여 작품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함이다(정보배, 2018: 93-100). 완판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 춘향은 비범한 열녀로서 당대의 가치인 열(烈)을 극대화할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며,¹²⁾ 이 부분에서 장면의 확장이 일어난다. 우선 완판에서 표현된 ‘춘향의 욕망’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관찰된다.

- ① 춘향이는 도도하야 기싱 구실 마다하고 (….) 장강의 식과 임스의 덕행이며 이두의 문필이며 틱스의 화순심과 이비의 정절얼 품어스니 금천하지절식이요 만고여중군자오니 황공하온 말삼으로 초리하기 어렵니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9장 후면)
- ② 도련임은 귀공자요, 손녀는 천첩이라, 한번 탁정한 연후의 인하야 바리시면 일편단심 이 닌 마음 독속공방 홀노 누워 우는 하는 이 닌 신세 닌 안이면 닌가 길고, 글런 분부 마음소서(13장 전면)¹³⁾
- ③ 어려부텨 절곡한 쓰시 잇서 (….) 일부중사하러 하고 사사이 하는 형실 철석 갖치 구든 쓰시 청송녹죽 전나무 사시절을 닷토난 듯 상전벽히될지라도 닌 쌀마음 변할손가 (23장 전면~후면)

춘향을 불러 오라는 몽룡의 말에 방자는 ①과 같이 거절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후 몽룡이 직접 불러 인연을 맺기를 청하자 춘향은 ②와 같이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날 밤 춘향의 집을 들러 몽룡이 월매의 허락을 청하자 월매는 ③과 같이 딸의 곁은 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완판 「열녀춘향수절가」는 춘향의 언행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말, 춘향의 거처 묘사를 통해 중심인물의 긍정적 내적조건 서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반면 신재효의 양반 향유층 중심 개작 의식은 몽룡이 춘향의 집으로 직

12) 완판 「춘향전」의 경우 29장본 → 33장본 → 84장본 개작의 과정에서 열녀로서의 춘향으로 이상화되고 이념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전상옥, 2008: 218-221).

13) 인용문에서 ①과 동일 작품일 경우 ② 이후 작품명을 생략한다.

접 가서 만나게 된 춘향의 모습에서도 관찰된다. 이는 같은 장면의 완판과 미묘한 대조를 이룬다.

- ① 잇딴의 춘향이는 방안의 혼자안저 레기(禮記)를 일거갈제 남자친영(男子親迎)홀식남선어녀(男先於女)는 강유지의야(剛柔之義也)니 천선호디(天先乎地)흐며 군선호신(君先乎臣)이 기의일야(其義一也)라 (『남창 춘향가』 14~16면)
- ② 춘향이 일편단심 일부종사하러 하고 글 한 슈를 지어 칙상 우의 붓쳐스되 디운춘풍죽(帶韻春風竹)이요 분향야독서(焚香夜讀書)라 기특하다 이 글 쓰스목난(木蘭)의 절이(節義)로다 (완판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상, 22장 전면)

몽룡이 춘향의 집을 찾았을 때 신재효본인 ①의 춘향은 「예기(禮記)」를 읽고 있었으며 그 내용인 즉 ‘남자가 몸소 여자에게 혼인을 요청한 것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의인데, 하늘이 땅보다 먼저하고 임금의 신하보다 먼저 함이니 그 의의는 하나이다.’이다. 이를 대입해 보면 몽룡과 춘향의 관계는 ‘하늘과 땅’, ‘임금과 신하’에 치환된다. 이는 춘향이 양반이자 남자인 몽룡의 뜻에 따라 혼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임을 표현한다.

반면 ②는 ①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성격이다. ②는 춘향이 방에 붙여놓은 글귀로, 봄바람에 운을 맞추어 피리를 불고, 밤에 향을 사르며 책을 읽는다는 뜻이다. 이는 ‘목난(木蘭)’이라는 인물의 절의를 뜻한다. 목난은 중국의 유명한 효녀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장을 하고 12년 동안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사람이다. ‘목난의 절의’란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면서 동시에 여장부로서 남자 못지않게 윤리적 삶을 당당히 실천한 적극적 여성의 내면을 표상한다. 이는 춘향 또한 남성 못지않게 절의를 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한다.

신재효 개작본 「남창 춘향가」의 춘향의 내적조건은 앞서 완판소설에서 묘사된 춘향의 그것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래 방자의 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월미라 호는 계집 인물가무 명기기로 경향에 유명호야 (...) 공교이 포티호니 양반에게 드른힐실 티교를 호라호고 석부정 부좌호고 활부정 부식호야 십삭 차셔 쫓나오니 익지중지 지를 적의 이 아히싱긴거시 얼굴이 일식이요 지조가 천싱이라 문장음을 침선음식 가지가지 다 잘호니 문장은 조디가요 필법은 위부인 칙문회의 정통음을 천상녀의 침공직질 모도 겸비호여시며 일녀전 낙척편을 밤낫스로 공부호야 일동일정 호는힐실 사부녀 지잔치요 (『남창 춘향가』, 6~8면.)
- ② 설부화옹이 남방의 유명키로 방첩스병부부군슈 현감 관장임네 엄지발가락이 두 썸가웃식 되난 양반 외입징이덜도 무슈이 보려 하되 장강의 식과 임스의 덕형이며 이두의 문필이며 디스의 화순심과 이비의 정절얼 품서오니 금천하지절식이요 만고여중군자오니 황공하온 말삼으로 초리하기 어렵니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상, 9장 후면)

춘향을 데려오라는 몽룡의 말에 신재효본에 등장하는 방자는 춘향에 대해 ①과 같이 말한다. 춘향 모 월매가 되기이나 과거 유명한 기생이었고, 어렵게 얻은 여식이 춘향이며, 애지중지 길러 사부녀(士夫女)에 모자람 없다는 것이다. 즉 ‘양반의 짝으로 손색없는 기생 딸’에 중점을 두어 묘사하고 있다. “일녀전 낙척편”을 밤낫으로 공부하고 “디비(代婢)너어 속신(贖身)”한 것 또한 귀한 딸이기에 아무나 만날 수 없을 뿐, 사대부의 좋은 짝이 될 준비된 여자의 모습이다. 또한 춘향의 아버지가 ‘성 천총(千總)’으로 소개되는데 ‘천총(千總)’과 같은 것으로 보이며 무관으로 조선 시대에 각 군영에 속한 정삼품 무관 벼슬을 일컫는다. 양반이나 완판본 춘향의 아버지 신분인 ‘성 참판’보다는 격이 낮다. 몽룡과 신분 격차를 벌려 춘향의 혈통이 부각되는 것을 막았다.

반면 완판 소설인 ②에서 방자를 통해 묘사되는 춘향은 여러 높은 양반들의 청을 물리친 드높은 절개의 여인이며, 중국의 고사 속 성인들에 버금가는 품격을 지닌 ‘만고여중군자(萬古女中君子)’이다. 양반의 짝으로서 준비된 여자라기보다, 남성 사대부들과 대등한 인격과 품격을 갖춘 여인이라는 의미

이다. 부모의 혈통 또한 아버지가 ‘성 참판’으로, 벌열 가문의 양반 혈통이다.

방자의 회유에 춘향이 넘어가지 않자, 신재효 개작본의 방자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춘향에게 영향을 준다. 이도령의 집안과 권력을 언급하며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 춘향이 고민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 ① 나 뵈신 도령님이 천상의 적하선관 반악의 고은 풍치 이두의 발월문장 (…)
팔자조흔 절디가인 풍류명스 총첩되야 입난 거시 능나금슈 먹는 거시 고량진
미 마마님 아니씨임 도쳐의 독교형차 그 아니 조홀 손가 (「남창 춘향가」, 10면)
- ② 네 눈으로 보와시면 디강 짐작 홀 터이니 광한루 건너가서 지닌가는 아회갓
치 도령님을 보고 오라 (12면)

방자는 ①에서 “삼한의 갑족”인 이도령의 첩이 되면 “입난 거시 능나금슈 먹는 거시 고량진미”일 것이라며 회유한다. 이에 춘향이 항단을 시켜 ②와 같이 “도령님 심긴 의표”를 확인한다. 이는 춘향의 계산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최혜진, 2012: 278). 일면 현실적인 인물의 형상화이나, 시대의 열녀로서 영웅적 면모를 지닌 완관 춘향의 형상화와는 결이 다르다.

2) 춘향의 시련

다음으로 춘향이 겪는 시련의 양상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춘향의 욕망은 ‘일부종사(一夫從事)’의 실현이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변사또는 새로 부임하자마자 수청 들기를 권유하고, 이에 춘향은 “충효열여(忠孝烈女) 상하 잇소”라 하며 격렬히 저항한다.

- ① 너갓튼 창기빅계 수절이 무어시며 정절이 무어신다 (…)
잇썩 춘향이 하기가 막켜 천연이 안자 옛즈오되 충효열여 상하 잇소 (…)
유부갑탈하난 거슨 죄 안이고 무어시오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하, 54장 전면~55장 후면)

- ② 춘향의 고든마음 아푸단 말 흐여서는 열녀가 아니라고 저러케 독흔 형벌 아푸단 말 아니히고 제 심즁의 먹은 마음 낫낫시 발명홀 제 십장가가 질어서는 집장하고 치는 믁의 언의 틈의 흘 슈 잇나 한 귀로 몽구리되 안죽은 제 글조요 밋죽은 육담이라 일칫낫 싹 붓치니 (『남창 춘향가』, 44면)

완판 84장본의 경우 춘향에게 닥친 시련의 가혹함과 이에 맞서는 춘향의 불굴의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해당 장면을 확장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53장 후면 중반부부터 59장 끝까지이며 전체 작품의 약 16%이다.¹⁴⁾ 반면 경판 30장본의 경우 제14장 후면부터 제15장 후면 중반부까지가 동일 장면에 해당한다. 이는 총 2쪽 반이 못 미치는 분량으로 전체 약 8.3%이다.¹⁵⁾ 경판에 비할 때 완판 84장본이 변학도와 춘향의 대결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정보배, 2018: 47-48).

반면 신재효 개작본은 춘향의 시련에 있어 완판보다 그 과정이 축소되어 있다. ②와 같이 “십장가가 질어서는 집장하고 치는 믁의 언의 틈의 흘 슈 잇나”라 하여 매 맞는 상황에서 십장가를 길게 부를 수 없음을 서술자가 직접 논평한다. 이 역시 현실적인 전개로 보이나, 시련을 정면 돌파하는 춘향의 비범함 강조나 위기감의 고조 효과는 완판본에 비해 자연 감소한다.

3) 춘향의 성취

마지막으로 춘향의 성취 양상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몽룡은 변사또를 징치하며 남원의 정사를 바로잡는다. 이에 완판의 춘향은 당초 욕망이던 일부중사 뿐 아니라, 왕에게 인정받아 정렬부인의 지위에 오르는 파격적 신분상승을 이룬다. 이러한 춘향의 경사에 남원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한다.

14) ‘사또 보시고 디히하야…큰 칼 쏘여 하옥하라 하니(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제53장 후면~제59장 후면)’

15) ‘신관이 춘향을 혼변 보미 심즁의 헤오디 형순빅옥이 진토의 못친 형상도 갖고…분부흐여 흐옥하라(경판 30장본 「춘향전」, 제14장 후면~제15장 후면).’

- ① 금준미주는 천인혈리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축누낙시 밀누낙이요 가성고쳐 원성고라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하, 82장 전면)
- ② 본관은 봉고파직이요 사디문의 방붓치고 옥형이 불너 분부하되 네 골 옥수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 다 각각 문죄 후에 무죄자 방송할 식(83장 후면)
- ③ 어사또 남원 공사 닥근 후의 춘향 모여와 상단을 서울노 치형할 제 위의 찰난하니 세상 사람덜리 뉘가 안이 칭찬하라 (84장 전면)

①은 몽룡이 객객으로 행세하며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지은 시로, 학정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스런 삶을 상징적으로 알린다. 이후 ②와 같이 백성을 괴롭히던 본관을 파직하고, 억울한 죄수를 풀어주는 등 만사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은 몽룡이 임무를 완수하고 춘향과 그 가족을 서울로 데려갈 때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칭찬하는 모습이다. 춘향 개인의 성취가 공동체의 행복과 연결되는 모습이다(정보배, 2018: 55).

이러한 열녀로서의 춘향의 성취 양상은 신재효본 결말부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어사또로 출두한 몽룡과 대면하는 장면에서 완판의 춘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 ① 정신을 가다듬어 자상이 알외논디 (...) 신관 솟도 불고체면 슈청 들나 위협하니 두 지아비 섬기기ᄃ 두 임금과 갓습다고 인증으로 아뢰었제 무슨 악설 호오릿ᄃ 십분 통촉 흡습쇼셔 일누잔명 살아쇼셔 (「남창 춘향가」, 94~96면.)
- ② 너례 오난 관장 마닥 기이 명관이로고나 수의사또듯조시오 청암절벽 뚝뚝바우 바람분들 문어지며 청송녹죽 푸린 남기 눈이 온들 벤하릿가 그른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밥비 찍여 주오(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하, 83장 후면)

①은 현실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으나, 완판 춘향처럼 서릿발 같이 매서운 맛은 없다.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는 어사의 말에 ②의 완판 춘향은 기가 막히니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하지만, 신재효본의 춘향은 “정신을 가다듬어”

사정을 아뢰고 억울함을 살피 살려 달라고 한다. 이성적이면서도 감히 당돌한 비유로 양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사대부의 여자’에 알맞은 모습이다.

신재효 개작본에서의 춘향의 성취는 개인의 성취에 국한된다. 파격적 신분 상승을 허용하지 않는, 양반 중심의 질서를 옹호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어스또는 본관을 봉고하고 문부스실 민장계스 삼일유런 허실적의 춘향의 집 밤의 단여 정담동포 허신 후의 부지거쳐 잠형허야 좌우도를 단이시며 출두로 문하난 공사(…) 어스또 부모님 전 춘향너력 고희신 후 호괴잇게 다려다그 아들 나코 쫄을 나코 오복 겸비 복년히로 뉘그 아니 부러허리 성상이 디회허야 이쵸참의 디스성을 불측용지 허옵시니 아미도 출렬지인은 후록이 잇스오니 (『남창 춘향가』, 98면)

어사또가 춘향과 재회하는 대목 역시 요란했던 춘향의 고생에 비해 차분하다. 어사가 된 이도령과 남원 일대에 열녀로 이름 난 춘향과의 결연이 비밀스러운 일인 듯한 인상을 준다. 춘향이 장한 열행(烈行) 또한 양반 가문의 첩실이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서술자의 논평인 “아미도 출렬지인은 후록이 잇스오니”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의 열행과 몽룡의 충성으로 인한 인과응보적 결말로 귀결된다. 춘향의 항거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재확인한다거나 그들의 소망과 관련된 결말은 아닌 모습이다(최혜진, 2012: 280). 이는 남원 사람 모두가 칭찬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완판본의 결말과 사뭇 다르다.

전체적으로 완판의 춘향은 열행을 통해 신분을 초월한 인간 존엄과 평등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다. 반면 신재효본은 신분 질서를 크게 거스르지 않으며 양반의 이상적 여인상에 근접한 춘향을 형상화한다. 이는 신재효가 강조했던 ‘이면에 맞는 전개’로서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일 것이다. 완판의 춘향과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기 때문이다. 인물 형상화에 드러난 두 작품의 상이한 관점은 당대인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드러내 준다.

4. 교육 방법·평가 방향의 제안

이본 비교는 기존에 연구자들의 작업으로 인식되던 활동이므로 실제 교육 활동으로 전이되려면 학습자 수준의 고려가 가장 큰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본 비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자 수준을 흥미, 교육 수준, 고전 경험 등을 고려하여 상, 중, 하로 나누어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하 수준의 학습자는 고전 작품을 접했던 경험이나 원문으로 된 고전을 해석해 본 경험이 거의 없으며, 고어의 독해력 및 독해력 전반의 수준이나 흥미가 비교적 낮은 학습자로 예상한다. 따라서 동기유발 활동이 중요한데, 학습자가 처한 지역 설화를 활용하여 유사 설화가 달리 전승되는 예를 소개하거나, 설화 이본을 비교하는 활동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¹⁶⁾ 작품은 현대어로 번역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본 비교 기준인 ‘육망, 시련, 성취’를 동기 유발 활동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고,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찾게 하기 보다는 일부분을 교사의 시범보이기 활동이나 학습지를 통한 빈칸 완성형으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 방법 및 평가 활동으로는 역할극이 흥미로울 것이라 본다. 같은 내용에서 달리 표현된 춘향의 묘사와 함축된 미묘한 내면 심리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모둠에게 보상하는 방식은 이본 비교의 묘미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¹⁷⁾ 간단하게 짧은 대본쓰기나 웹툰 그리기로 갈음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학습자들과 상의 후 합의 하에 정하며, 동료 간 상호 평가 방식도 고려한다.

반면 상 수준의 학습자는 고전을 접한 경험 혹은 원문의 고전 해석 경험

16) 혹은 기존에 잘 알려진 선녀와 나무꾼 설화나 토끼전의 다양한 결말을 소개한 후, 그 다양한 의미를 토론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7) 고전 읽기 후 반응 형성 과정에서 역할놀이 활동은 “학습자의 자발적 체험을 유도”하는 성격이 크기에 놀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세심한 역할이 요구된다(류준경, 2018: 11-12).

이 있는 학습자이며 이 분야의 흥미도 비교적 높다. 이본 일부를 비교적 원문 그대로 제시하여 분석하도록 한 후, 동료와 협의하여 작품 비교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학습 성취 정도에 따라 이본의 전체를 제공하여 프로젝트 학습의 형식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활동을 제안한다. 정규 교과로 버겁다면, 교과심화동아리 등 비교과 활동을 통해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향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므로 고소설 이본 비교를 수업 전면에 내세우고 향후 인문 분야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육 방법 및 평가 방향으로는 비평문 쓰기를 제안한다. 이본 파생의 근본 원인은 ‘다양한 요구와 취향을 가진 독자층의 존재’이기에, 한 작품 속 인물의 형상화 경향을 관찰·비교하고, 이를 당대 독자의 소망이나 요구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본 비교 교육에 있어 최상위 수준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중 수준의 학습자를 위해서는 이본 제시의 방향이나 기준 제안, 분량 등을 상, 하 학습자의 중간 수준으로 맞추면 될 것이다. 교육 방법 및 평가 활동으로 ‘가치토론’을 제안한다. 미덕 카드를 이용해서 각 작품에 형상화된 춘향의 미덕을 뽑아서 비교하거나, 어떠한 춘향이 더 매력적이거나 옳다고 생각하는지 피라미드 토론을 통해 도출하는 방법 등은 흥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좀 더 심도 있는 방향으로 춘향의 가치관,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당대 독자의 가치관 대한 토론이 실시될 수 있다.

작품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두 이본의 장면별 장·단점을 비교 평가한 후 새 이본 창작하는 방법이 있다. 유사하게는 결말을 바꾸거나 후일담을 첨가하는 것은 잘 알려진 활동이다. 독자의 참여를 창작에 용인하는 것 또한 판소리 문학에 내재한 향유 관습이므로, 이의 취지를 살려 활동을 안내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본이야말로 공동 창작의 소산이므로 협동학습 방향으로의 설계가 활동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¹⁸⁾

18) 이본 비교 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에 자신의 학습과 탐구

학습 대상을 고등학교 학습자로 엄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했으나, 수준이나 흥미 여하에 따라 조절이 유연하다. 학습자의 지역적 특성과 요구, 실시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방향으로 안내한다면, 지금껏 훈고 중심, 설명 중심의 고전문학 교육과는 다른 인상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절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학습자 수준에 따른 이본 비교 교육 방향

학습자 수준	교육 내용 (이본 제시 방향)	교육 방법 및 평가
하	1. 현대어 번역 2. 비교 기준에 맞는 내용 일부 혹은 전체 제시 3. 교과 진도나 학습 목표에 적합한 내용 발췌 제시	1. 친숙한 설화의 이본 비교 활동 2. 비교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기회 제공 3. 빈칸 채우기 서술 및 교사의 시범 보이기 4. 각 이본에 표현된 인물 역할극
중	1. 현대어 일부 번역 2. 비교 기준에 맞는 내용 한 장면 제시 3. 교과 진도나 학습 목표에 적합한 내용 발췌 제시	1. 비교의 기준 제시하되, 그 의미를 스스로 도출해보도록 유도 2. 가치토론 활동(미덕카드, 피라미드 토론 등) 3. 새로운 이본 창조 활동(모둠별 혹은 개인별)
상	1. 원문에 가까운 번역, 혹은 원문 2. 작품 전체 제시 3. 수준에 따라 이본 종류 추가	1. 비교 기준의 학습자 설정 유도 2. 프로젝트 학습, 비교과 활동, 고교 학점제 독립 교과목 설정 3. 당대 독자의 요구, 가치관 관련비평문 쓰기 활동 실시

활동을 메타 점검하면서 객관화하도록 돕는 동료의 역할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에 있어서 동료 역할과 그 중요성은 김병권(2011: 8-10)을 통해 참조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는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을 골고루 함양하는 고소설 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이본 비교 교육을 제안하고, 이의 교육 방안을 마련해보았다. 현 고등학교 1~3학년이 학습할 선택과목 ‘문학’의 성취기준들은 국어과 6개 핵심 역량과 골고루 관련되지 않는 편이다. 교과서 속 고전 문학 작품 배치 양상은 ‘문학’ 과목 내의 다양한 내용체계 영역과 관련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교과 역량과의 관련성을 추구하였으나, 여전히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에 집중 배치됨으로써 지식의 일부로 가르쳐질 우려가 컸다. 이에 본고는 기존 6개의 역량과 고전문학의 관련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이본 비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고전문학이 집중적으로 학습자에게 안내되었던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이른바 국문학사 교육의 궁극적 의도는 학습자들이 시대의 흐름과 문학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역동하는 양상을 탐구하게 하는 것이리라 본다. 이상적인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작품에 대한 내·외적 맥락 정보를 찾고, 작품의 궁극적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작품과 시대의 흐름이 조응하는 양상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래와 마찬가지로 이 방면에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맥락 정보만을 활용하게 되면, 결국 동일한 해석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에 학습자의 사고 능력 계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임주탁, 2013: 119-122), 학습자가 작품 해석의 주체적 관점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내부의 자생적 요구가 아닌 외부의 영향과 단순한 ‘변화의 압박’으로 인해 시작된 핵심 역량의 논의가 기존 교육의 전반적 물음과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변화 여부를 떠나, 작품 제

목과 고정되어 전해 내려오는 주제의 습득을 유도하는 경향으로부터 ‘한 작품이라도 제대로 맛보게 하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일 작품의 여러 이본을 통해 한 작품의 의미 또한 깊게 드러난다. 대표 고소설 작품 중 한 작품과 관련된 진지한 이본 탐구만으로도 고소설의 묘미를 깊이 경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설의 특성에 대한 구조화된 지식 체계의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이본 비교 교육을 통해 고전문학과 학습자의 실제적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한 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학습자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인간 이해의 깊은 시각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고전의 풍부한 이본 세계를 잘 활용한다면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기르면서도 한국적 특색을 잃지 않는 매력적인 인재 육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단, 고소설 이본 파생의 경우 다양한 유통과 향유 맥락을 최종적으로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판소리계 소설은 창본(唱本)의 존재로 인해 유통 및 변이의 양상이 다채롭다. 이 점을 교육 방법의 일환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춘향전」 이외의 판소리계 소설과 필사본, 방각본 등의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유통된 고소설 작품들로 본고의 논의 범위를 넓혀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여러 과제는 후고를 기약한다.

* 본 논문은 2020.1.31. 투고되었으며, 2020.2.19. 심사가 시작되어 2020.3.5.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한영 교주(1984), 『신재효 판소리사설집』, 서울: 교문사.
- 고영화(2015), 「구비문학 이본 비교 활동의 교육적 가치」, 『겨레어문학』 54, 35-54.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세종: 교육부.
- 김병권(2001), 『방각소설 장풍운전과 문화관습』, 부산: 세종출판사.
- 김병권(2011), 「퇴계의 자통해(自通解) 학습 연구」, 『퇴계학논총』 18, 5-15.
- 김인선(2019),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의 교육방안 연구 : <심청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우(2017),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문학’의 변화와 개선 방안」, 『문학교육학』 55, 47-84.
- 김종철(1999), 「소설의 이본 파생과 창작 교육의 한 방향」, 『고소설연구』 7(1), 353-375.
- 김진영·김현주·손길원·진은진·김희찬(1998), 『춘향전 전집』 4, 서울: 박이정.
- 김현주(1996), 「경판과 완판의 거리 : 판소리계 소설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적 해석」, 『국어국문학』 116, 157-184.
- 류수열(2017), 「고전문학 향유 리터러시의 위계화 시론 - <토끼전>을 중심으로 -」, 『고전문학과 교육』 36, 5-31.
- 류준경(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의 소설 관련 교수-학습방법 구현양상 및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모색」, 『한자한문교육』 45, 1-26.
- 류탁일(1981),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서울: 학문사.
- 서보영(2017), 「고전소설 삽화 재구성 교육 연구 - <춘향전> 이본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진(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 교과 역량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54(4), 67-103.
- 서인식(2010), 「교육 텍스트로서의 <홍길동전>」, 『고전문학과 교육』 20, 225-248.
- 심지영(2011), 「‘읽기’를 바탕으로 한 <춘향전> 교육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열관(2014),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글로벌 규범과 로컬의 전유」, 『교육과정연구』 32(3), 21-44.
- 이대규(1988), 「교과로서의 문학의 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화(2019), 「핵심역량으로서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요소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2(3), 1-29.
- 이진숙·김은주·김대현(2017), 「2015 개정 과학과 공통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교과역량, 교과역량-성취기준의 관계 분석」, 『통합교육과정연구』 11(2), 1-25.
- 임주탁(2013), 「맥락 중심 문학교육학과 비판적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40, 89-130.
- 전상욱(2008), 「완판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의미-서지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6, 201-228.
- 정병헌(1985),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연구』, 서울: 평민사.

정병헌(2002), 『관소리와 한국문화』, 서울: 역락.

정보배(2018), 「완판 판소리계 소설의 독자기대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광석(2001), 「학습자 인식을 통한 고전소설 교육 방향의 모색」, 『문화와 융합』 23(1), 211-230.

최혜진(2012), 「신재효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관(官)·민(民) 의식과 사회적 지향」, 『한국언어문학』 82, 265-296.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고소설 이본 비교 교육 방안 연구 —「춘향전」의 두 이본을 중심으로

정보배

본 연구는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고소설 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고소설 이본 비교 교육’을 제안하며, 이의 구체적 교육 방안을 마련해보았다. 핵심 역량의 대대적 도입과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6개의 국어과 교과 역량과 선택과목 ‘문학’ 성취기준과의 대응은 불명확했으며, 문학 교과서 내의 고전 작품 역시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같이 특정 영역에 편중된 배치를 보여 고전문학을 통한 핵심 역량의 함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춘향전」의 두 이본을 중심으로 기존 6개의 역량과 고전문학의 관련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이본 비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본 비교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미래사회에서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인간 이해의 깊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핵심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소설 교육, 고소설 이본, 「열녀춘향수절가」, 「남창 춘향가」, 「춘향전」, 고소설 독자

Comparing the Teaching of Alternative Works of Korean Classical Novels for the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eis

—Focusing on the two alternative versions of 「Chunhyangjeon」

Jeong Bobae

This study proposes ‘Comparing the Teaching of Alternative Works of Korean Classical Novels’ as a way of raising core competenceis emphasized in the 2015 curriculum. The researchers prepared education content, methods, and directions for evaluatio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has been introduced to learners in the form of literature history. As a result, learners tend to find it burdensome and difficult to accept classical literatur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re competency standards, it was expected that the 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would change. However, literature-relate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curriculum were not even-ly related to the six core competencies of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Literature textbooks also show that classical literature is still being taught as part of knowledge as literary history. This study suggests the contents and method of comparative education of alternative works of Korean classical novels by re-establishing the relevance of the six existing competencies and classical expertise, centering on the two versions of Chunhyangjeon. Through this Korean classical novel education method, learners will be able to enhance their creativity, problem-solving skills, and understanding of human history related to the core competencies of future society.

KEYWORDS Core Competences,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lternative Works of Korean Classical Novels, 「Chunhyangjeon」, 「Yeolneochunhyangsujeolga」, 「Namchang-Chunhyangga」, Korean Classical Novel Readers